안녕하세요, 도산 선생님

볕 좋은 날이면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외할아버지 회사로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을 자주 산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유모차도 끌어주시고 손을 잡고 한발두발 걸음마 연습을 했으며 그러다 많이 넘어지기도 했겠지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는 그곳에서 흙장난도 했어요. 세발자전거도 탔고 할아버지와 공놀이도 했어요. 평일 낮의 그 공원은 한가롭고 따뜻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곳에 제가 노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금색의 동상이 있었죠. 양복을 입은 남자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저는 우리 할아버지인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 동상이 당신이었다는 걸, 그곳이 당신의 호를 딴 도산공원이었다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 저는 이곳 LA에 있습니다. 지난달 막 열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곧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갈 수 있게 되는 나이가 되다니 벌써 어른이 된 것처럼 마냥 들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까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날, 16세 생일날 아버지가 주신 신문 속 기사에서 저는 바로 당신, 도산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사는 현재 103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십대에 만난 도산선생님에 대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고향 송산리교회에서 하신 연설이, 나라 잃고 방황하던 십대청소년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주제였습니다. 이제껏 조국의 운명과 내 인생을 직접 연관 지어본 적 없던 저는 그 연설 내용과 도산 안창호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산선생님의 연대기와 업적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위인전에서 각각의 인물과 사건으로 배웠던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들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상하이 훙커우 공원 폭탄 사건의 뒤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책에서 이름을 보았던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신민회도 당신과 연결되었습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미국, 멕시코, 유럽과 러시아를 누비며 나라 잃은 해외동포들을 집결시키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나라 안에서는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자는 애국 운동을 하신분도 바로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기획력 빛나는 분이었고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공은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지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은 자꾸만 당신이 열 여섯이던 그 때에 머뭅니다. 평안남도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던 열여섯의 당신은 힘없는 조국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청나라와 일본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로 상경해 신식학문을 배우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었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난 때도 바로 제 나이었다는 것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서울에서 자라다가 최근에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곳도 미국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열 여섯에 시작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이 키우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항일투쟁이 없었다면 저는 제 뿌리가 KOREA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역사속에만 존재했던 이름으로 교과서에서나 배우지 않았을까요?

어릴 적 놀던 도산공원에서 만난 금색 동상의 아저씨, 저는 지금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와 우체국과 Ahn House가 있는 LA에 살고 있습니다. 열 여섯의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이념 다툼을 하며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은 인격이 되자,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자.” 고 했던 당신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 앞의 내 미래만 생각하던 나의 눈을 들어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 여섯이라는 나이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1일 Theo Lim (임정우)
올림